



# 길선주 목사와 한국교회

Pastor, Rev. Kil Sun-ju and Korean Church

김 석 환

(사회교육원장/조직신학)

## 目 次

### I. 서론

### II. 본론

#### 2.1 길선주 관련 기록들의 작은 차이들

- 1) 집회기간 중 누가 설교를 담당했었는가에 관한 문제
- 2) 길선주 장로가 시각적 예증설교를 행한 날 ?
- 3) 통성기도의 시작 장면 묘사

#### 2.2 길선주의 사역에서 크게 도전받는 감명들

- 1) '아버지' 부름의 중요성
- 2) 광인과도 같은 전도애의 열정
- 3) 한국교회의 특징이 된 새벽기도회의 시작
- 4) 민족문화운동

### III. 결론

### Bibliography

## I. 서론

평양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인가? 물론 서방의 선교사들도 아니고 한국의 사역자들도 아니다.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그때 그때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시다가, 때가 차매 이 반도 강산에 대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 때가 바로 1907 년이었다. 그 때의 그 사건을 이름하여 우리는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주관하신 그 큰 역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발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과연 선교사들이었는가, 아니면 국내 ‘한국인 목회자들’<sup>1)</sup> 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선교사들이라 함은 당시 장대현교회의 당회장 일을 번갈아 가며 맡아보았던 마포 삼열 (Dr. Samuel Moffett) 선교사<sup>2)</sup> 와 이길함 (Graham Lee)<sup>3)</sup>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여러 평양 주재 선교사들을 말하며, ‘한국인 목회자들’ 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장대현교회의 당회원들이었던 장로들 중에서도 설교와 목회 사역에 있어 다른 한국인들보다 거의 독보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길선주 장로 (1869-1935)를 주로 일컫는 표현이다.

1) 여기에서 ‘한국인 목회자들’ 이라는 표현은 약간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한국 장로교에서 최초로 목사로 장립된 사람들은 1907년 6월 10일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9월 17일에 장대현교회에서 장로교 제 1회 독노회 목사로 장립된 7명의 목사들 (이기풍, 길선주, 송린서,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서경조)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길진경,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pp. 208-209.

그들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있던 1907년 1월 기간 중 아직 목사로 장립받지 못하고 조사나 또는 장로 신분으로 있었으며, 또 설교를 포함한 목회의 중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에 아직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길선주 장로의 경우는 약간 예외였다고 말할 수가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 선교사들에 의하여 ‘가장 은사받은 한국인 설교자’라고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마포 삼열 (Dr. Samuel Moffett)은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는데, 이북의 중심지인 평양을 선교 근거지로 설정하고 사역했다. 그리고 후에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3) 이길함 (Graham Lee)은 1897년 8월 15일 평양성 판동 (널다리골) 교회에서 길선주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길선주 장로는 ‘한국교회의 지도자이자 민족의 선구자’,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sup>4)</sup> 또 베른하이젤 (C. W. Bernheisel)은『The Korea Mission Field』에서 그를 ‘가장 위대한 한국 개신교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술하였다.<sup>5)</sup> 이러한 그가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 기간 중에 성령님에 의하여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부흥의 불길을 계속 전국적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 길선주였음에는 틀림이 없는데, 1907년 그때 아직 장로였고 조사로서 신학수업을 쌓고 있던 그가 평양대부흥운동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은 특히 첫째 길선주가 평양대부흥운동이 있기 이전인 1906년 가을부터 장대현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여 평양대부흥운동의 준비도 어느 정도 길선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 둘째 그 기간 중 그가 계속 한국인들만의 새벽기도를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책에 의하면 그 기간 중 그가 다섯 번 이상을 설교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부흥운동 그 기간 중에도 이미 그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 II. 본론

### 2.1 길선주 관련 기록들의 작은 차이들

#### 1) 집회기간 중 누가 설교를 담당했었는가에 관한 문제

박용규 교수는 평양대부흥운동 기간 중 크게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

4) 길진경, 「영계 길선주」, p. 129.

5) C. W. Bernheisel, “Rev. Kil, Sunju”, *The Korea Mission Field* XXXII-2 (February 1936), p. 29.

6)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184-190 ;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8, pp. 138-142.

는데, 그중 한 번은 1월 14일 헌트가 설교를 담당하고 그레함 리 선교사가 통성기도를 요청한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 그 날의 특기할만한 사실로서 박교수는 강유문의 김장로에 대한 미움을 비롯한 그의 죄악 고백에 초점을 맞춘다.<sup>7)</sup> 그리고 또 한 번은 집회 마지막 밤인 1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있었다고 기술한다. 이때 길선주라는 이름 앞에 박용규 교수는 그 당시 선교사들 간에 그렇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장 은사받은 한국인 설교자’ 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그 날의 상황을 게일 (Gale)과 스왈런 (Swallen) 등 외국인 선교사들의 보고를 인용하여 묘사한다. 그리고 그 날 있었던 특기할만한 사실로서 주장로와 김장로의 회개, 특별히 김장로가 방위량 선교사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대해서 실감있게 기술한다.<sup>8)</sup>

그런데 김인수 교수는 14 일 저녁집회 때 설교를 담당한 사람이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 (W. N. Blair) 였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김인수 교수는 그렇지만 그날 부흥의 불길이 떨어진 중요한 이유가 바로 1906년 가을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박치록 장로와 함께 시작한 새벽기도회로부터 준비된 은혜때문이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간 부흥운동을 사실상 계속해서 이끌고 나간 사람 역시 길선주 장로였다고 평가한다.<sup>9)</sup>

반면에 길진경 목사는<sup>10)</sup> 매 집회 때마다 길선주 장로의 열정적인 설교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특기할만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고 하면서 매 번의 설교제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각 날의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pp. 214-223.

8) Ibid., pp. 228-235.

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pp. 169-170.

10) 길진경 목사는 길선주 목사의 둘째 아들이로서 (원래는 다섯 번째 자녀였으나 다른 아이들이 어려서 사망함으로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다)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총무를 지내기도 하였다.

11)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184-190.

① 첫째 날 (수요일) 저녁: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 특기사항- 통성기도로 인한 우렁찬 기도가 혼란 없이 오래동안 계속되었다.

② 둘째 날: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 특기사항- 청중 가운데서 한 젊은이가 회개 간증을 시켜달라고 눈물로 간청하였는데, 그는 허락받은 후 자기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길장로 댁에서 이부자리와 늦그릇 몇 점을 훔쳤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③ 셋째 날 저녁: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 ‘지옥을 취하라, 천당을 취하라?’

▪ 특기사항- 방은덕이라는 순포 (경찰)가 장대현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자기의 죄들을 자복한다는 말을 듣고 범죄자들을 많이 잡고 싶은 욕심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개하고 대성통곡했다.

④ 넷째 날 저녁: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 (행 5:1-11)

▪ 특기사항- 10 여 년간 불도를 닦은 승려 김덕엽이 말씀을 듣던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 증거로 자기의 팔목에 끼었던 염주를 벗어서 길장로께 드렸다.

⑤ 다섯째 날: 길선주 장로의 설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진리

마지막 날 저녁: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 특기사항- 범복을 입은 한 카톨릭 신부가 우리 가운데 계신 천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광에 참여한 기쁨에 감격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해서 자기의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어서 길장로께 기념으로 드렸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박용규 교수는 그의 자료들을 대부분 선교사들의 선교보고와 편지들에 의거하고 있고, 길진경 목사는 그의 자료들을 대부분 길선주 목사 자신의 기록들<sup>12)</sup>과 「김인서 저작전집」 중 제 5

12) 길선주 목사 자신의 기록들에는 ① 그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비망록 (종이 절지에 친필로 기록한 것)과, ② 그의 가정에 비치한 ‘각처 교회 부흥 강도 제목’이라는

권 “영계 선생 소전”, 「영계 길선주 목사 유고집」 등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정성구 교수는 「한국교회설교사」라는 그의 책에서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을 기술함에 있어 첫째 날 저녁부터 넷째 날 저녁까지의 상황을 길진경 목사의 책을 참고로 하여 기술한다. 그러면서 평양집회 자체를 ‘길선주 목사의 대부흥회’ 라고 호칭하면서 그 집회의 마지막인 주일 아침에 성령의 역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면서, 길선주 목사가 독특한 방법, 즉 실증적인 예증방법으로 설교의 마지막을 끝맺은 일을 이길함 (Graham Lee) 선교사의 보고를 인용하여 진술한다.<sup>13)</sup>

## 2) 길선주 장로가 시각적 예증설교를 행한 날?

길선주 장로가 그 유명한 시각적 예증설교를 행한 날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즉 길진경 목사는 그 설교를 평양대부흥운동 집회 마지막 날의 설교로 기록하는데 반하여, 박용규 교수는 그 설교를 그 집회 이후 첫 주일 예배 때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길진경 목사는 이길함 선교사의 보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sup>14)</sup>:

일요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예정대로 오전 성경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강연회로 모였다. 이길함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sup>15)</sup>: 길장로가 설교했는데, 그는 설교의 마지막을 실증적인 예증으로 끝맺었다. 한 끈의 밧줄로 자기의 가슴둘레를 단단히 얽어 메고. 그 한 끝을 한 사람에게 잡게 하고 강둑상 곁에 서있는 윤산은 선교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것은 죄에 얽매인 사람이 그 줄을 끊고 하나님께

기록과, ③ 또 그의 일기책 (주로 1922-1924 의 것) 등이 있다.

13)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pp. 138-142. 그런데 길선주 목사가 이와 같이 실증적인 예증방법으로 설교하여 놀라운 효과를 거둔 날이 주일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설교가 주일 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의 전도강연회 때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날의 주일이 집회 기간 중의 마지막 날이었던 주일이었는지, 아니면 집회가 끝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14) 길진경, 「영계 길선주」, p. 196.

15)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 Y.: Laymen's Missionary Movement, 1909, p. 210.

돌아오려고 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죄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듯 하다가 결국에 그 줄을 끊고 강둑상으로 달려가 윤산은 선교사 (매쿰, George McCune)와 서로 껴안았다. 그때 나는 방위량 선교사와 함께 시골 교회를 인도하러 여행중이었다. 윤산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길조사가 그 밧줄을 끊으려고 할 때, 회중은 숨을 죽인 듯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 밧줄을 끊고 둘이 서로 팔을 벌려 껴안았을 때, 그 결과는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울부짖었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룻바닥에 넘어져서 완전히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길장로는 온 회중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저녁집회에 다시 오라고 선포하였다.

한편 박용규 교수는 ‘사경회 이후 장대현교회 첫 주일 오전예배’라는 제목 아래 그 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up>16)</sup>:

바로 그 다음 날 주일 1월 20일, 오전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대현교회로 모여드는 이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밝고 평화스러웠다. 그날 아침 장대현교회에서는 주일 오전에 보통 갖는 성경공부를 마치고 오후예배 (전도강연회)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다. 뛰어난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길선주 장로의 그날의 설교는 어느 날보다도 더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생생한 예화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지었다. 바로 이 예배가 그로부터 2년 후 게일이 ‘가장 놀라운 집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 바로 그 집회였다.<sup>17)</sup>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과연 이 설교가 그 집회 마지막 날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 집회 이후 첫 주일의 오후 전도강연회 때에 있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둘 중의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두 진술들 모두를 귀하게 보면서 그 진술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사점들을 찾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줄로 판단한다.

1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p. 252-254.

17) Gale, *Korea in Transition*, p. 210.

### 3) 통성기도의 시작 장면 묘사

통성기도의 시작 장면의 묘사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박용규 교수는 이 장면을 다소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묘사하면서 그 시작을 그레함 리 선교사에게 돌린다. 이것은 선교사 매쿰 (McCune)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박용규 교수는 그것이 1월 14일 월요일에 있었던 현상으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바로 그 날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집회 때 헌트의 폐부를 찌르는 설교가<sup>18)</sup> 있던 후 그레함 리 선교사가 모인 회중에게 통성기도를 요청하자, 2,000 명의 회중이 하나로 연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 모인 회중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sup>19)</sup> 그 다음 날 매쿰 (George McCune, 운산은)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헌트의 설교 후 리 (Lee)가 몇 마디 말하였다. 즉 리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자, 곧 남자들로 가득 메워진 실내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실내의 남자들 대부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장관이었다! ... 그중에 얼마는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들이 범한) 어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였다.<sup>20)</sup> ... 그레함 리 선교사가 모두 힘을 다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제의하자, 죄를 회개하는 울부짖는 소리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도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그 엄청난 기도 소리,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렁찬 기도 소리 속에서도 전혀 혼란이 없었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그 장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현장을 목격한 방위량 (W. N. Blair) 선교사는 그 이듬해 ‘한국의 오순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함 리 선교사가 사회를 보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선

18) Blair 에 의하면, 그날 설교를 맡은 이는 강 장로였다고 한다.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저녁설교를 돌아가면서 맡았기 때문에 훗날 증언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215 에서 재인용.

19) G. S. McCune,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p. 1; William Blair, *Chansung's Confession*, Topeka, Kansas: H. M. Ives and Sons, 1959. p. 99.

20) Ibid.



포하였더니 ...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대해호 (大海湖)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 올라가는 듯하였다.<sup>21)</sup> ... 그날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가운데서 임재하시지 않고, 평양 시내가 떠나갈 듯한 회개의 기도 소리와 함께 임하셨던 것이다. 그날 그레함 리의 통성기도 제의는 마치 준비된 뇌관에 불을 당기듯 가득 메운 실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sup>22)</sup>

또한 김인수 교수는 이 점에 대하여 ‘운동의 결과’라는 제목에서 방위랑 (Blair)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그레함 리에 의하여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up>23)</sup>

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가 주도한 ‘새벽기도회’ 라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회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일은 목격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되었다: ...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함 리 (Graham Lee) 선교사가 사회하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선포하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므로, 그는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니, 온 회중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정황은 실로 글로 적을 수 없는 정도였다.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저항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심교였다.<sup>24)</sup> ... 부흥운동은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한국 특유의 기도방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 새벽기도와 함께 부흥운동의 결과로 남아 오늘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주요 기도방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반면에 길진경 목사는 다소 한국인의 관점에서 기술하면서 길선주 장로의

21) W. N. Blair, *Gold in Korea*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노이다, 김승태 역, 서울: 두란노, 1995, p. 10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p. 215-216.

22)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216.

23)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pp. 175-178.

24) W. N. Blair & Bruce Hunt, *The Korean Pentecost &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p. 403.

인도하에 회중의 기도가 저절로 통성기도로 화했음을 기술하는데, 이 현상이 집회 첫 번째 주간의 수요일 (첫째 날)에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5)

수요일 저녁에 집회는 열렸다. 예배당은 만원이었고,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회중으로 꽉 찬 장내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찬송 소리는 우렁차고, 기도에 응답하는 회중의 아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는 선생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장내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직전에 삼라만상이 정적에 잠긴 것처럼, 고요했다. 모두의 시선은 강단에 집중되었고, 선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민족의 살 길을 외치는 정열에 모두의 마음이 빨려들어 갔다. 성신으로 충만해진 선생의 설교는 흐르는 시내 같았고 회중은 감격하였다. 설교가 끝나고 선생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감동받은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기도가 우러나기 시작해서 저절로 통성기도로 화했다. 각자의 기도 소리는 점차로 높아졌다. 그러나, 혼란됨이 없이,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화의 자세였고 자연스러웠다. 통성기도는 오래 계속되었다. 선생은 찬송 부르기를 요청했고, 청중은 기쁨에 넘쳐 노래하였다. 선생은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계속하고, 돌아갈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라고 했다. 수백 명이 남아서 기도를 계속하였으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 자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정 부분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이해의 폭이 보다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2.2 길선주의 사역에서 크게 도전받는 감명들

### 1) '아버지' 부름의 중요성

길선주는 열아홉 살에 관성교를 비롯해서 스물아홉 살까지 선도에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경험을 얻었을

25)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184-185.

뿐이었고, 인간의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에서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인격신’을 인격으로써 부닥쳤을 때, 그 순간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아를 비로소 발견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았고 만족하였다. 성경을 밤을 새워 가면서 읽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같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을 수 없는 부자(父子)의 관계와 같음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악과는 이 관계를 맺은 약속의 상징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sup>26)</sup>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영생의 진리를 탐구하던 길선주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는 길선주의 대각(大覺)이었다.<sup>27)</sup> 이 부분을 길진경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up>28)</sup>:

선생은 「천로역정」을 읽기 시작했다. 읽는 중에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 눈물로 책장을 적시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김종섭 씨가 다시 찾아왔다. “삼령 신군께 기도하니 어떠합니까?” “기도하니 번민만 생겼습니다.” “그러면 천부(天父)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여보시오. 지존 막대하신 상제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것이면 상제님이라고 부르고 상제께 기도해 보시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는 깊은 밤과 이른 새벽마다 상제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상제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신뢰하고 공부하던 선도는 의심이 생기고 저- 의로운 듯한 예수교 도리는 영생의 진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옵고, 저는 심히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음에 안정을 주옵소서.” …

하루는 밤이 깊어 새로 한 시쯤 되었을 때였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사방에서 울어 대는 귀뚜라미의 맑은 소리에 마음이 한결 새로워지는 가을밤이었다. 선생 홀로 꿇어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선생의 기도 역시 생사를 걸어 놓은 씨름이었다. 땀을 흘리며 간곡하게 “예수가 인류의 참 구주인지를 알려 주옵소서”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청아한 옥피

26)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73-74.

27) Ibid., p. 131;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p. 146.

28)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71-72.

리 소리가 방을 진동하더니 요란한 총소리가 뒤흔드는 듯하였다. 선생이 깜짝 놀라는 순간,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세 번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그 자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하고 기도하였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터지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방성대곡하였다. 오랜 시간, 선생의 기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마음에는 기쁨이 용솨음치고, 감사한 눈물이 샘물처럼 넘쳐흘렀다. 세상에 대한 염세증은 기쁨에 정복되었고, 예수가 구주임을 알게 해 날라고 상제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선생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연치 않게 김인수 교수도 영국의 저명한 신문인 「더 타임스」(The Times)에 실린 기사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준다.<sup>29)</sup>

새벽기도회로부터 준비된 사경회는 몇 날이 못 되어 부흥의 불길이 떨어졌는데 그 때가 바로 14일 저녁집회 때였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W. N. Blair)가 고린도전서 12:27을 읽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이라”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불길이 떨어졌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 신비한 힘이 넘쳐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밤 영국의 저명한 신문인 「더 타임스」(The Times)에 실린 기사내용을 옮겨 보기로 하자. 이 글은 영국의 켄실(William Cecil) 경이 직접 목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이 힘의 나타남을 폭공적(暴恐的)이라고 기술하였다.<sup>30)</sup>

2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pp. 169-170.

30) The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for 1907, p. 419; Mrs. W. M. Baird (Annie A.),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 2) 광인과도 같은 전도애의 열정

### ① 중생한 직후

길선주는 소위 ‘중생한 광인’으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 먼저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는 복음을 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고향 안주로 돌아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가? 여기에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선주 그의 변화된 삶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몇 가지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길선주 그는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다. 그리고 의리가 있었다. 가령 그의 친구 김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길선주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함께 선도에 몰두하며 일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한 지우 김찬성을 찾았다. 둘은 서로 만약 어느 누가 한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한 친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길선주의 전도를 받은 김찬성은 그후 예수를 믿고 길선주와 함께 학습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양신학교에도 입학해 졸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sup>31)</sup>

둘째, 길선주에게는 친구를 꼭 전도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다. 그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의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길선주에게는 친구를 전도할 때 열심뿐만 아니라 또 끈질긴 권유와 맺고 끊는 분명함이 있었다.

셋째, 길선주는 그것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다. 특히 그의 형을 위해서는 20년간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7년동안 위하여 기도한 결과 회개한 이경식 씨는 진사로서 ‘적은 예수’라는 명칭을 들으니만치 독실하

---

(May 1907), pp. 65-67.

3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p. 297-298. 김찬성은 평양신학교를 2회로 졸업하고 평안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장남과 차남도 목회자가 되었는데, 김화식 목사가 그의 장남이다.

였다. 평양에 장대현교회는 그가 세우고 그가 길러낸 교회였으며, 기타 교육 사업에 있어서도 崇德, 崇賢 및 교회내 남녀야학 및 기타에 그의 힘이 안다는데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sup>32)</sup>

## ② 전임사역자 (조사)가 된 이후 집회인도자로서의 시작

길선주는 만 33세 때에 장대현교회 조사 겸 황해도-평안도 양도의 도(都) 조사에 취임하였으므로 황해도를 잊지 않았다. 그는 1906년 음력 8월 추석절을 기해 재령에서 개최된 황해도 도사경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집회에서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즉 길선주는 평양대부흥운동이 있기 이전에 1906년에 이미 재령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길진경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sup>33)</sup>

음력 8월, 곧 추석절을 기해 황해도 도사경회가 재령에서 개최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집회를 인도하는 선생을 통해 나타났다. 발갈듯하는 성령의 맹렬한 보습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쏟아 놓고 통회의 눈물을 건잡을 수 없이 흘렸다. 무서운 기세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길은 용서 없이 각 사람의 마음의 죄를 파헤쳤다. 통회하던 이재선(李在善) 장로는 거꾸러지고 말았다. 이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준비하여 두신, 김익두(金益斗) 조사 ('한국의 무디' 라는 별명의 소유자), 이원민(李元敏) 등 유력한 지도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 놀라운 선생의 영력은 선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다.

## ③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이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의 길선주의 활약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부흥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의 성령의 역사의 전파는 거의 절대적으로 길선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제는 선교사들보다 오히려 국내 목회자, 즉 길선주에 의하여 이 부흥이 거의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07년 2월,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약 한 달만에 서울 지역이 이 물결에 휩싸였는가 하면, 곧 이어 의주와 압록강 연안 (용천, 의주, 강

32)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382-383; 「신학지남」, 1936년 1월호.

33) 길진경, 「영계 길선주」, p. 183.

계, 초산), 그리고 대구, 영천 등 전국에서 길선주에 의하여 지역별 연합사경회가 인도되었다. 특히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는 선교사 클락이 목회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1907년 2월 17일부터 있었던 서울장로교 연합사경회는 그 해 승동교회 1년 회기 중 가장 특기할만한 집회였다. 즉 길선주 장로의 도움으로 교회가 설립된 이래 한 해 동안 거의 배가 성장하는 ‘가장 놀라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4)</sup> 언더우드와 널 (M. N. Null)이 건강악화로 사역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그와 같은 결실이 나타난 것은 1907년 전반기에 서울 전역을 휩쓸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답을 찾을 수 없다. 金麟瑞는 길선주와 서울의 부흥운동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전한다<sup>35)</sup>:

이 부흥의 소문이 조선 각지에 들니움에 전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 是年에 京城敎會에서 선생을 청하여 勝洞, 蓮洞, 水口門, 尙洞, 제 교회에서 집회할 새 성령의 爲化가 크게 나타났다. 勝洞은 본명 僧洞을 이 부흥회 때에 선생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여 勝洞이라 개칭하고, 蓮洞에서는 고 李明燦 목사의 통회기절과 兪星濬 씨의 통회를 비롯하여 크게 부흥하였고, 水口門교회에서는 1시간 집회를 하였는데 큰 은혜가 임하였다. 鄭春洙 씨와 李夏榮 씨가 이때에 靈化를 받았다.

확실히 길선주의 설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길선주가 인도하는 일련의 서울 전도집회에서 1,200명이나 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길선주의 서울 집회가 얼마나 놀라운 집회였는가를 말해 준다. 길선주를 논하지 않고는 평양대부흥운동을 논할 수 없고, 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가 얼마나 평양대부흥운동의 저변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는 한 선교사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잘 나타난다: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 때에 길목사는 평양과 다른 선교부 모두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필자는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시아인이

34)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 (『김인서 저작전집』 제 5 권), 서울: 교문사, 1976, p. 7. 이 기간 중 250명에서 400명으로 성장했다.

35) Ibid., p. 34;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304.

든 유럽인이든 청중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국적의 사람을 짐체 들어보지 못했다. 그의 음성은 달콤하고 그의 예절은 사람을 사로잡았으며,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심령에 호소해,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막 웃다가 울다가 엄청난 죄의 확신으로 전율하였다.<sup>36)</sup>

### 3) 한국교회의 특징이 된 새벽기도회의 시작

한국교회의 특징이 된 새벽기도회, 그리고 통성기도회와 철야기도회가 1907년 정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던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 시작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장대현교회와 길선주 장로의 이 부분에서의 공헌은 실로 작지 않다. 이 사실에 대하여 김인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sup>37)</sup>

그런데 이 집회에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그 교회가 새벽기도회로 준비된 때문이었다. 그 전해 가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길선주 장로가 인도하고 있었다. 길선주 장로는 같은 교회 장로인 박치록과 함께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며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였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하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에는 300~500 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길 장로는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매일 수백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회에 정식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평양대부흥 집회 기간중에도 한국의 교인들은 길선주의 인도에 따라 새벽기도를 계속하였다. 그 집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던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벽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록 웨일즈 부흥운동을 비롯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부흥에 새벽기도가 항상 한국에서와 같이 동반된 것은 아니었지만).

36) "Kil Moxa," *KMF* VII:5 (Jun., 1910), p. 118;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305.

3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p. 169.



#### 4) 민족문화운동

길선주 목사는 장대현교회에서 일찍이 민족문화운동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민족의 장래가 암담해진 그 시점에 믿고 기댈 곳이 없는 민족적 원한을 가슴에 안고, 장대현교회는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아악과 미술과 연극 등을 장려하였고 문맹 퇴치의 기치를 들고 한글 교육에 전력을 다하였다.<sup>38)</sup>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아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오락 활동 등이 장려되었으며, 심지어 그 프로그램들 중에는 여승들의 춤을 흥내낸 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는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중요한 주장이었다.

또 길선주 목사는 교회 구내의 청년회관을 조선식 건물로 아담하게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내일의 일꾼에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훈하였다. “과거를 잊지 말라. 현재에서 단결하라. 내일의 터를 오늘에 닦아라.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라. 시대 양상은 변화한다.”<sup>39)</sup>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문화와 외국문화와의 갈등이 시작된 현실에 살고 있다. 외국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교차로가 된 오늘의 교회가 외국문화의 산실의 전제적인 그림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 위에 꽃을 피우는 기독교가 되는 때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될 것이다.<sup>40)</sup>

길선주 목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회부흥운동을 계속하였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민족개조론과 민족 고유문화의 시대화를 제창하였다. 농촌개발운동을 고취해서 자가생산으로 자립생활을 장려하였고, 생활개선을 위해 특히 언어의 순화, 식생활 (잡곡 음식), 주방, 부엌과 굴뚝 개조 등을 중용하였다. 또 경제 사상을 일으켜 몰산 장려, 금주·금연 운동을 계속하여 퍼면서 민족정신을 양양하였고 자활정신을 양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sup>41)</sup>

38)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248-249.

39) Ibid., pp. 249-250.

40) Ibid., p. 253.

41) Ibid., p. 325.

길선주 목사는 아들 길진경 목사 (1933년 10월에 평양노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고 곡산읍교회를 맡고 있었음)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자,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를 편히 놓아 주옵소서. 그러나 병석에서 죽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다. 그는 이 기도를 강단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3년 동안 계속하였다.<sup>42)</sup> 그러다가 1935년 11월 20~26 일 평안남도 강서군 임차면 고창교회 (高昌教會)에서 평서노회 부흥 도사경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는 집회 마지막 날 집회의 폐회 축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뇌일혈을 일으켜 쓰러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26일 오전 9시에 운명하였다.<sup>43)</sup>

### Ⅲ. 결 론

김인서 목사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sup>44)</sup>

先生の 初期 復興에는 奇事 異蹟이 重重하고 그 說教 壇下에는 高구라지는 警官과 服罪하는 宣教師가 있었고 氣絶하는 貴人과 強盜가 있었고 病나온 사람과 불을 본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先生을 吉 大使라고 부른 것은 先生の 받은 불이 猛烈하였던 때문이다. 오! 선생은 聖火의 人이었던다. 先生の 後期 復興運動은 聖經을 中心하여 眞理를 傳播하며 主 예수의 再臨을 確立하였고 末世의 잠을 깨게 되었으니 先生은 眞理의 使徒요 末世의 使者였도다. ... 先生은 高령의 老軀를 이끌고 오히려 年三十週 集會와 日 四, 五次의 說教로 쉬지 않고 외치다가 平西老會 查經中 1935년 11월 25일 (새벽) 高昌 예배당 講壇에서 쓰러져 翌 26일 午前九時 三十分에 長漸하시니 先生은 殉教的 最後를 遂하였다.

42) 길진경, 「영계 길선주」, pp. 317, 320.

43) Ibid., pp. 320-321.

44) 김인서, “靈溪 선생 소전”, pp. 75-76.

길선주 목사의 삶을 정리해 보면, 그의 초기의 삶은 성령을 강조하고 회개와 중생을 강조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속출한 삶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그의 후기의 삶은 재림을 강조하고 말세를 강조하면서 성경 중심의 사경회를 전국적으로 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거룩한 불의 사람’이었으며, 후기에 ‘강단의 사람’, ‘말세의 사자’로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서 그의 초기와 후기의 구분 기준은 1919년 3.1 운동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는 1902년 만 33세 되던 해에 도조사에 취임하여 전임사역을 시작한 이래 1935년 만 66세 되던 해에 운명하기까지 33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하여 성령께 쓰임받았는데, 1919년은 거의 그 중간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1 운동 이후 석방된 후 그는 목시록 강의와 말세학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구원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전국 순회 부흥운동에 전무하였다. 특히 마지막 14년간 순회강연의 거의 90퍼센트가 새벽기도회에 ‘예수 수난’과 오전 성경공부에 ‘말세학’으로 일관하였다. 이것은 그가 초대 사도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계수하였고 ‘말세학’으로써 최후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남긴 자취를 살펴보면, 그는 40년간의 교직생활 중에 설교 2만 번(또는 1만 7천번) 이상을 하였고, 그 청강자가 연 3,800,000명 이상이었는데, 그의 설교 내용은 진리적이었고 예언적이었으며 영감적이었다. 그가 설립한 교회 수는 60여 곳이며, 길러낸 사회 일꾼은 800여명, 그가 세례준 교인들의 수효는 3,000여명에 달한다. 그는 장대현교회 내에 구역제도와 심방대를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또 찬양대를 조직하여 이 조직들이 전국 교회에 파급되게 되었다. 또 그는 전도회를 창설하여 남녀별로 조직하였는데, 특히 여전도회 조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규방에 은거해 있는 것을 좋게 보는 풍습이었던 것을, 이 조직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이 미신을 타파하고 복음전도에 앞장서게끔 전환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1908년 평양도당회(각 교회당회 연합회)의 인준을 받아 공인된 전도회는 점차 그 활동무대를 넓혀 갔다. 그 외에도 그는 평양교회 부인연합전도회, 노동전도회, 노인경건회 등의 교회기관을 설립하였고, 또 장립집사제(안수집사제)를 제의하여 노회에서 채택케

함으로,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감독기관으로 존재하고 장립집사가 각 부서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sup>45)</sup>

그는 실로 강단의 사람이었다. 강단에서 시작해서 강단에서 마친 사람이었다. 육신의 눈은 상해서 앞을 못 보았으나 영안이 밝아 겨레의 장래를 직시하고 교회의 신앙을 정도로 세워주며, 스스로는 죄인임을 늘 느끼고 살다간 한국교회의 一代의 사람이었다.<sup>46)</sup> 그의 설교는 민족의 문제와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다만 그가 주로 제목설교에 집착했기 때문에 설교방법론에 있어서 다소 풍유적 (Allegorical)인 해석법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길선주의 이런 방법은 한국 기독교 100년사 (초창기)에 언제나 있어 왔던 흐름이었다.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소리높이 외치다가 강단에서 쓰러진 거인이었다.<sup>47)</sup>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45) 길진경, 「영계 길선주」, p. 326.

4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353.

47)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pp. 153-154.

## Bibliography

### 1. 영문단행본, 영문보고서 및 영문정기간행물

- Allen, Horace N. *Things Korea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 Baird (Annie A.), Mrs. W. M.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7).
- Bernheisel, C. W. "Rev. Kil, Sunju". *The Korea Mission Field* XXXII-2 (February 1936).
- Blair, William N. *Chansung's Confession*. Topeka, Kansas: H. M. Ives and Sons, 1959.
- \_\_\_\_\_ . *Gold in Korea*. Topeka, Kansas: H. M. Ives and Sons, 1957.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노이다」. 김승태 역. 서울: 두란노, 1995.
- \_\_\_\_\_ & Hunt, Bruce. *The Korean Pentecost &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 Clark, Charles Allen. *The First Fruits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0.
- \_\_\_\_\_ . *The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0.
- Gale, James S. *Korea in Transition*. N.Y.: Laymen's Missionary Movement, 1909.
- \_\_\_\_\_ . *Korean Sketch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898.
- Johnston, Howard Agnew. *Studies for Personal Workers*. New York: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1905.
- Moffett, Samuel Hugh.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 Soltau, T. Stanley.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New York: World Dominion Press, 1932.
- *The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for 1907.

- “Kil Moxa.” *The Korea Mission Field* VII:5 (Jun., 1910).

## 2. 한글단행본 및 한글정기간행물

-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기독교서회, 1994.
- 길진경.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 \_\_\_\_\_ 편. 「영계 길선주 목사 저작전집」. 제 1집. 서울: 기독교서회, 1968.
-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6.
- \_\_\_\_\_ .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 (「김인서 저작전집」제 5권). 서울: 교문사, 1976.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백락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변린서·강규찬·김선두. 「평양노회 지경 각교회 사기」. 평양: 광문사, 1925.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6.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78.
-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8.
- 한우근. 「한국통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홍치모. 「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 대한예수교 독노회록, 1907-1911.
- 대한예수교 총회회의록, 1912-1938.
- 「기독교사상」, 1957-.
- 「기독신문」, 1938-1941.
- 「독립신문」, 1896-1899.
- 「신학지남」, 1918-1940.